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9월 29일(금)
--(음력 8월 15일)--
Пятница
29 сентября 2023 г.
№ 38 (1205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1일은 러시아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한다. 춤을 통해 제2 젊음을 되찾고 있는 '희망'무용단의 멤버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10월부터 연금 등 인상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기준으로 80세가 되는 연금수급자의 연금 고정액이 2배로 인상된다. 또한 건강한 비근로의 친척이 8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를 돌보고, 사회 기금을 통해 그의 보살핌을 공식화하면 연금 수급자가 매달 1200 루블리의 추가 지불금을 받게 된다. 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각 부양가족에 대해 월 2500 루블리의 추가 지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연방 경비국, 연방 보안국, 연방 교도소, 해외 정보국, 방위군 및 내무 기관 직원을 위한 연금도 색인화된다. 연동체계는 이러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한 연금을 10.5%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증가세이다.

군복무 기피하는 경우 벌금 인상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은 더욱 가혹한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소환장을 무시하면 시민에게는 10,000 ~ 30,000 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병역 의무 회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이를 위해 조직 책임자에게는 40 ~ 50,000 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게는 350,000 ~ 400,000 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할린주, 전염병 상황

사할린 주에서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및 인플루엔자 발생에 관한 역학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15건의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등록되었다고 사할린주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이 보고했다.

해당 기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수치는 전주 대비 31.9% 증가한 수치이다.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 병원체로는 아데노 바이러스, RS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및 라이노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다.

일주일간 코로나19 발병률도 증가했다. 코로나19의 경우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지역에서 성인 환자 15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10월 1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세대 간의 소통과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 보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사할린에 고령의 어르신들은 대조국 전쟁의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시고, 남 사할린과 쿠릴을 해방시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와 산업을 건설하고, 지역 광물 자원을 개발하며, 부모님을 보살피고, 자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르신들의 모범을 따르고, 지향하며, 사할린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 사할린을 번창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에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가치있는 여건 조성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체계입니다.

첨단의료기술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기 심층 건강검진과 확대된 공중보건 지도 관찰을 도입해 많은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사할린 장수〉 기획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체조교실, 문화 행사 참석 등의 기회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을 활동적이고 유익한 생활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피보호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배려와 관심을 쏟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사랑스런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따뜻하고 유쾌한 만남을 기원합니다!

노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정부, 중국과 관광교류 확대 협약

사할린주가 중국 하이룽장 성에서 온 대표단을 맞이했다. 하이룽장 성의 대표단에 게 사할린과 쿠릴의 인기 관광코스와 투자 기획이 이뤄지고 있는 사할린의 대표 브랜드를 소개했다. 우선적인 것들 중 하나로 사할린의 여행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우리 여행사들의 대표들은 사할린의 인기있는 관광코스와 새로운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사할린의 관광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교류할 중국의 업체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상호 관광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하얼빈의 항공 직항 노선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항하고 있다."라고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부투하노브 차관이 말했다.

사할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관광이 '고르니워즈두흐'에서 이어진 가운데 케이 블카 노선과 관광객들의 계곡을 보여주었다. 대표단은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겨울철과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알파인 스키 코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특산물 소개가 사할린 수출 지원 센터에서 진행됐다. 수출 지원센터는 '모이 비즈니스(개인 사업)' 센터의 설계를 작성하고, 사할린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고 있다. 만남에서 자체 생

산품인 제과와 클로포브카 음료를 중국 대표단에게 선보였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제안했다. 하이룽장 성의 상무부는 이미 러시아 제품에 대한 전자 플랫폼을 만들었다. 2차로 우리는 중국 측에 사할린의 제품을 수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업을 요청한 가운데 향후 상호협력력을 위한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사할린 수출지원센터의 마리아 야르벤코 대표 대행이 설명했다. 또한 주 정부청사에서 수산부, 농산업부, 투자정책부, 관광부, 경제개발부 등 핵심 부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뤄져 대표단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토의 적합성과 농산업 운영의 방법들에 대해 설명했다.

제안 중 하나로 중국에 화훼 공급이 있었고, 지역 특산품으로 미네랄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소개했다.

중국 사업가들에게 사할린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와 사할린의 채굴업체들에 서비스 제공, 사할린에 새로운 생산업 설립에 투자를 요청했다.

주변 국가와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은 사할린 주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협력 및 수출'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본사 편집부로부터: 지난 9월 6일-8일간 여성가족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의 역사를 다룬 '내가바다가될 때'작품으로 문학상을 수상한 최빅토리아(최옥순) 작가가 이 대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다. 발표 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할린 1세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 발표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아래에 최 빅토리아 작가의 발표문(번역 리 올가)을 게재한다.

사할린한인의 운명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작가 최 빅토리아입니다. 사할린 섬에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빅토리아라고 했지만,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저의 이름은 '옥순'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16세에 사할린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할린섬 남쪽은 일본의 땅이었어요.



1905년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에서 졌고, 사할린섬 남부 지역은 새로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가라후토라고 불렸죠. 새로운 토지 개발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제국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한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광산, 벌목장, 도로, 공장에서 일했고,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이었죠. 그들은 하루에 16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계획된 작업을 하지 못하면 '타코베야' 감옥으로 보냈고, 거기서 살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서둘러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섬에 남아있었고, 5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소련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소련은 서방국가들로부터 고립정책을 펼쳐 한민들은 가정 안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니다. 제 여권에 한국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저는 러시아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조선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라서 조부모님과도 한국어로 소통을 못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0년대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고, 소련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외교관계를 회복했고, 마침내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민들은 귀국의 행복한 날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할린에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학교가 생겼고, 한국 문화축제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사할린 우리말방송국과 한글로 된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관계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지원 특별사업도 진행되고 안산 시에는 사할린한인을 위한 고향마을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할린한인의 운명에 관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설책은 '내가 바다가 될 때'라는 제목을 부쳤습니다. 우리의 1세대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죽으면 화장해서 그들의 재를 바다에 흩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면에 계속)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가족팀>대회에 참가



요즘 지방에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의 활동팀이 지난 27일(수) 돌린스크시에서 개최된 '가족팀/사할린주 가족 스포츠대회(주최: 러시아 청소년국가공공운동 <학생 리더(빠르위예)> 사할린 지부)에 참여하여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김밥 및 파전 요리교실을 진행하고, 한글쓰기 및 공예 활동교실을 열었다.

시식 행사는 물론 이 모든 활동교실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전해졌다. (사진: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제공)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사할린에 한국교육원을 열다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회고록

한만희 사할린 한국교육원 초대 원장 (1993.12.1-1997.11.30)

며칠 전 아침에 무심코 카톡을 보다 낯선 문자와 이름을 보고 놀라 열어보니 사할린 새고려신문의 배 빅토리아(배순신) 사장의 안내글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은 청탁의 글이라는 내용을 읽고는 감회가 남달랐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되었나 하고 되돌아보니 30여년 전 1993년 12월10일이 생각났고 사할린교육원 개원 전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1993년 서울교육청에서 인사업무 담당 장학사였던 나는 연일 보도되는 러시아의 나쁜 뉴스를 보고 말리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교육부의 공모에 응시하였다. 당시 체제변환기의 러시아는 마피아의 횡포, 도둑의 극성 등 체제변화에 따른 혼란이 극도에 달하던 시기였다. 원장으로 선발되기는 했어도 사할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난감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와는 적대적이었고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나라와 국교관계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발하는 교육부조차 백지 상태라 원장으로 선발된 나보고 알아서 준비 하라는데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 저리 정보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다 보니 1990년 한러 국교 수교가 이루어지자마자 발빠르게 통로를 열고 교류를 시작한 곳이 몇 곳이 있었다. 그중의 한 곳이 삼육대학과 광림교회였다. 삼육대학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분교를 개설하고 상당한 숫자의 선교사와 교수 요원이 왕래하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광림교회에서는 나이든 사할린 1세 노인들을 초청해 가평 근처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삼육대학에서 만난 선교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연해 준대 비하여 광림교회 측에서는 초청해온 1세 노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알력 때문인지, 사할린 가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여튼 여기 저기서 정보를 귀동냥해서 준비를 해 11월 26일 출발했다. 직항로가 없어서 우선 하바롭스크로 가서 일박하고, 다음날 아침 프로펠라 비행기로 사할린을 가야했다. 하바롭스크에서의 1박 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공항으로 나갔는데 마침 하바롭스크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재미교포 선교사를 만나 쉽게 숙박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 사할린행 비행기를 타는데도 문제가 생겼고, 마침 배운차 나와있던 백순희 한글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5\$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할린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인 강준치, 문경자, 김순자 등 선생님들이 마중을 나와 주어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숙소를 정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교육원이 세들기로 한 21학교(예멜야노바 19A)로 나갔다. 시멘트 벽돌 2층 건물의 1층 남쪽에 일반교실 3개와 짓다만 교실 하나가 우리 교육원용으로 가계약되어 있었다. 교실 크기는 한국의 일반교실 보다 약간 작았고, 짓다만 교실 하나는 무용실로 사용 하려고 공사하다가 중단하여 뼈대만 남아 있어서 내부공사를 해야 했다. 딸린 화장실을 가보니 좌변기 위 커버는 다 떼어 가고 아래 몸체만 덩그러니 서있었다.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원을 개원하는 건데 이런 건물을 고르다니 모스크바 교육관이 원망스러웠다. 어디 앞을 자리조차 없었다.

마침 교장이 휴가 중이라(학기 중에 교장이 휴가를 가다니 한국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었다.) 교감이 교장실을 준비위원들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라고 권고하였다. 우리의 사무실에 해당하는 게 거기서는 비서실이었다. 아무리 교장이 없다고 해도 교장실을 쓸 수는 없어서 우리는 비서실 한 구석에 책걸상을 준비하고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매일 오후 3시에 6-7명이 모여 개원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로는 우리 교육원 개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와 있던 국립재외동포교육원에서 근무하다 알마타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던 변영종 선생과 그의 현지 한국어 선생 6명이 모였다.



한국어 선생님은으로는 한국어 교사협의회장이 이옥자의 공노원, 김순희, 신동식, 김탁곤 등이 있었다. 대강 열개를 만들고 다시 세부사항별로 준비 내용을 만들어 갔다.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었지만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었다. 체제 전환기라 시장은 텅 비어있어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물건을 구해야 했다.

다행히 한국어 선생님들이 교육원 설립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다.

나중 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리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전까지는 한국은 북한이 보내준 선전 자료에 의해서만 알려졌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알려졌었다. 미 제국주의의 약탈과 핍박 속에서 거지와 양공주등이 시내에 꼭차고, 50년대 서울 외곽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판자집과 빈민촌으로 묘사된 한국은 글자 그대로 암흑세계고, 구제 불능의 나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당시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참석하였고, 동시에 한국의 발전된 모습의 진면목이 처음으로 전파를 타고 사실 그대로 보여졌을 때 동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루 아침에 기피의 대상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팽개쳐던 한국어 교육을 1989년에 시작했다.

과거 1965년 소련 수상인 흐루쇼프의 러시아화 정책으로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유지됐던 조선어 사범학교는 없어졌고, 동시에 카레스키가 많은 러시아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도 중지되면서 조선어를 가르치던 교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선생님들이 하나둘 모여 한국어 교사 모임을 갖고, 한국어 교육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우선 1989년 재학생 중 카레스키가(한인) 많은 사할린한인 밀집 지역의 러시아 학교들을 찾아가 이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권유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과거에 사할린한인을 무시하던 러시아 인들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알고는 부러워하며 한국어 교육에 동참했다고 하였다. 한편 그들은 한국 정부에 영사관과 교육원 설립을 청원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영사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 최대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 설립하고, 43,000여 동포가 밀집한 사할린에는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여 초대 원장으로 내가 가게 된 것이었다.

준비위원회가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착착 진행해 드디어 1993년 12월 10일 제21학교 강당을 빌려 개원식을 가졌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교육부 이문희 과장과 이유식 연구사, 모스크바 대사관의 이종석 교육관, 블라디보스톡 박영준 총영사 그리고 알마타 한국교육원의 안재식 원장도 먼길을 와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러시아 측을 대표해서는 부주지사 파르후트지 노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장과 사할린주 교육감 등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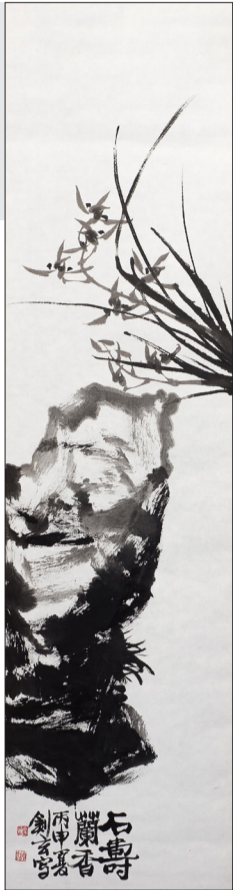
김흥지 한인회 회장과 많은 동포들이 참석함은 물론 재학생 중 카레스키가 많아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제9학교에서는 10여 명의 한국어 교사는 물론, 동포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하여 축하까지 불러 주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강당에서 개원식을 끝내고 중앙 현관으로 이동하여 개원 축하 다과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시내 음식점에서 축하 파티도 가졌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Корейская каллиграфия (2)

Пак Джон Хве (1944 г.р.). Про-
винция Кенги-до, г. Сеул
► Орхидея. 2016 г.
Бумага, тушь. 133x33; 154x43
Поступление: дар автора,
2016 г.
КП-10235 Ж/в-1439



Пак Джон Хве – один из старейших мастеров традиционной живописи сагунджа, изображение «четырёх совершенных»: слива мэйхуа, орхидея, хризантема, бамбук. Традиция изображения «четырёх благородных цветов» является классическим воплощением в живописи символической трактовки нравственной чистоты и утонченности человека благородного.

На работах свиточного формата классики цветочного жанра писали по одному или несколько кустов орхидеи, зачастую в паре с камнем причудливой формы. Монохромная композиция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в нижней половине свитка тяжеловесного устойчивого камня написан плотной тушью широкими мазками. Хрупкие по форме цветы дикой орхидеи на тонких стеблях с острыми длинными листьями в верхней половине свитка образуют встречное движение с камнем, создавая гармонию светлого-темного, женского-мужского, небесного-земного начала. В нижней части композиции иероглифический текст, две квадратные печати.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В Анапе прошли XV Всероссийские юношеские Игры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Это ежегодное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совых детско-юноше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форумов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по более чем двадцати видам спорта, культивирующим боевые искусств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авило в этом году около п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более семидесят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боролись за медал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кикбоксингу, тайскому боксу и тхэквондо ГТФ.

В результате в копилке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16 медалей раз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Так, золото завоевали Денис Ли (кикбоксинг), Руслан Тимаев и Тимур Сейтаблаев (оба выступали в тайском боксе), а также Владислав Ма (тхэквондо ГТФ).

Обладателями серебряных медалей стали Александр Лепетун (тхэквондо ГТФ) и Евгений Ненашев (кикбоксинг).

Третью ступень пьедестала заняли сахалинцы: Денис Ли (тхэквондо ГТФ), Ростислав Микшенко, Александр Лепетун, Шуну Челтушев, Марк Энто, Илья Долгих, Анастасия Меленкес, Софья Кубыро и Карина Казанцева – все боролись в кикбоксинге.

Соревнования завершились 19 сентября.

Информацию 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МФТ) Ан Сухаги

Власти Кореи предают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ев

Казахстанские потомки героев Кореи возмущены действиями вла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трана долго и упорно добивалась возвращения праха Хон Бом До из Казахстана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друг выясняется, что там не так уж и дорожат памятью об этом легендарном генерале. Его бюсту, как оказалось, не место в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се потому, что лидеру сопротивления японскому колониальному режиму инкриминируют членство во Всесоюзн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большевиков (ВКП(б)).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Кореи Doknip-Patriot (Казахстан) считает такое решение властей Кореи предательство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героя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Кореи DoknipPatriot:

– В нашем молодежном движении дети учатся на примере героев Кореи, своих праотцов. Учатся тому, как нужно любить родину, как ставить для себя высокие цели, быть смелыми и сильными. И я сам поддержал решение о передаче праха героев из Казахстана, когда Корея обратилась с такой просьбой. Приезжали делегации, которые убеждали нас, что это один из важных шагов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лось Хон Бом До – ярчайшей личности, внесшей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тогда приводило много аргументов, убеждая, что весь народ полуострова чтит память этого героя, хочет уч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на его примере. В общем, убедили нас, казахстанскую диаспору корейцев. А теперь выясняется, что бюсты героев, в том числе Хон Бом До, хотят убрать куда подальше. Оказывается, не так уж ценны эти герои для Кореи. Это же неправильно. Хочу сказать народу Кореи: у вас каждые пять лет меняются президенты, и вы каждый раз будете переписывать историю? Этот поступок властей Кореи стал плевок нам в душу. Я рад, что в ответ развернулось движение против такого решения, началось сбор подписей. И мы соберем миллион подписей протестующих, а то и больше. В этот момен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должна не просто высказать озабоченность, а действовать более решительно. Надо понимать, что речь не идет 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Кореи. Затрагивается наша общая история, к которой мы имеем само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Ведь мы говорим сейчас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ях. Я возмущен. Хочу сказать президенту Кореи: если Хон Бом До стал вам неугоден, тогда возвращайте его прах обратно в Казахстан. Здесь мы его по-прежнему чтим. Память о нем всегда будет в нашем сердце и сердцах наших детей. 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отов вернуть корейские ордена, которыми меня наградили.

Ирина Ге, потомок героя Кореи Ге Бон У,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Кореи Doknip-Patriot:

–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я оказалась в Корее именно в те дни, когда услышала новость о переносе бюста Хон Бом До. И, конечно, постаралас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на которой был высказан протест такому решению. Новость о переносе бюста Хон Бом До потрясла меня, и я не поверила своим ушам. «Это могло случиться где угодно, но не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 подумала я тогда. Вопрос о передаче праха из казахстанской земли в Корею поднимали давно. И он решалс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так как потомков Хон Бом До нет в живых. Помню, когда был жив мой папа (Ге Николай Денис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потомков «Докнип» в 2001-2017 годы), он понимал, что именно Корея сможет с должным уважением и заботой присматривать за могилкой борца и патриота Хон Бом До. То,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всегда относилось к патриотам, отдавшим свои жизни борьбе с врагом, вызывало глубокое уважение и являлось для нас примером. Но теперь это мнение в корне изменилось. А ведь мы понимаем, как важно подать правильный пример подрастающей молодежи. И мне досадно наблюдать за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правитель-



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ислушается к протестам, которые выражают как мемори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 и простой народ. А также примет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и подтвердит крылатую фразу: «Без прошлого нет будущего».

Светлана Хегай, потомок героя Кореи Ким Ген Чен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Кореи Doknip-Patriot:

– Как странно смотреть на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со стороны. Я всегда считала, что Корея – это именно та страна, которая чтит своих героев и представляет достойный пример для всего мира! Но сегодняшняя ситуаци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политика и здесь может переписать историю! Но только не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Для нас Хон Бом До останется навсегда героем, который отдал свою жизнь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воей родины.

Надежда Ким, потомок героя Кореи Цай Григория Николаевича, участница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Кореи Doknip-Patriot:

– Новость о переносе памятника геро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затронула чувства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к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Такая идея могла прийти в голову только тем, кто пытается переделать историю в угоду сво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амбициям. Заслуги генерала в борьбе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Неизвестно, как бы сложилась судьба Кореи, если бы не героизм и преданность Хон Бом До 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своей родине и народу. Отговорки, что бюсты героев «противоречат самобытности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в Сеуле), являются просто абсурдными. На каких академиях тогда воспитывать будущих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Больно и страшно, когда забывают, нет, предают память тех, кто не пожалел своей жизни за свободу и благополучие родины, а значит, и всех нас, ныне живущих.

Вячеслав Ли, потомок героя Кореи Хван Ун Дена, участник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Кореи DoknipPatriot:

– Не редкие ряды переписчиков и интерпретаторов истории, любителей мерить выдающихся людей своими посохами и «сезонными» мерками. Как известно, свои жизни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внешних врагов отдавали корейцы разных сословий и разных убеждений. У них была общая цель, и они ее достигли, все вместе и каждый в отдельности. Их жертвенная борьба и победа неоспоримы, и более того, не может раскладываться по карманам эпохи и по разным ячейкам народной памяти! Ревизионизм – хронический порок общества.

Олег Хе
Источник Корё Ильбо

Семь из десяти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и

72,1%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вос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недавнего опрос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Это третий опрос на данную тему,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о итогам предыдущих двух результатов составляли 76,1% и 73%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реди причин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 этот раз респонденты указали на снижение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28,2%), экономи-

ческий рост (26,3%),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20,7%). Высокая дол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выступающая за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а также озвучивание цели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мотива дл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вязывают с влиянием жестк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мэров

С 24 по 26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прошел 1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мэров (WCMSF). Это крупнейше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иним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лица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В нём участвовали делегации 50-ти городов из 29 стран,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21-й иностранной компан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первый и второй дни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программы по знакомству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Сеула и форум мэров. 25 сентября мэр Сеула О Сэ Хун представил результаты мер,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ддержку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поделившись опытом Сеула в этом вопросе. Далее делегации 12 город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Веллингтон, Дублин, Сучжоу, Тайбэй и другие, познакомили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со своей политикой городского развития. 26 сентября – посещение ряда объектов и выставка. На поля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эрии Сеула провели дву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а также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о дружбе с делегатами восьми городов.

Суд отклонил ордер на арест Ли Чжэ Мёна

Рано утром 27 сентябр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отклонил ордер на арест лидера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а. Приняв во в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ва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на защиту и риски, связанные с уничтожением доказательств, суд пришёл к выводу о недостаточной обоснованности причин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держания Ли Чжэ Мёна под стражей.

Суд также признал наличие основан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порить подозрения в коррупци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 районе Пэкхён-дон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отправке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бвинений в даче взятки показаний. Прокуратура выразила сожаление и несогласие в отношении принятого судом решения.

РК посетят жертвы атом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в Японии

С 28 сентября по 3 октября в РК придут жертвы атом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ред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 этом 26 сен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игласил их в мае во время участия в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в Хиросиме. В РК они посетят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еула и вместе с главой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м ужине. Также они пройдут мед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КНР и Япония спорят по проблеме сброса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На полях ежегодной Генер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МАГАТЭ) в Ве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Р и Японии обозначили разные позиции по сбросу воды с аварийной АЭС «Фукусима». По данным японской телекомпании NHK, 25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оронной науки, техник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НР Лю Цзин назвал воду с АЭС «загрязнённой радиацией водой»,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Япония пошла на сброс, проигнорировав жёсткий протест населения соседних стран, тем самым вызвав серьёзные опасения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Японии Санаэ Такаичи заявила, что только Китай, являясь членом МАГАТЭ, позволяет себе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заявления и меры чрезмерного ограничения импорта. Она призвала Китай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основе научных фактов 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только 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Лю Цзин между тем указал на недостаточность разъяснений Японии по влиянию сброса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на экологию и человека. На это Санаэ Такаичи ответила, что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оцесса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ежедневным мониторингом.

Саммит РК, КНР и Японии состои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К, КНР и Япон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в ближайшее удобное время провести трёхсторонний саммит, в которо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емь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Р Ли Ця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Об этом 26 сентября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Им Су Сок. В этот день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трёх стран: Чон Бён Вона, Нонг Ронга и Такэхиро Фунакоси. Как сообщила японская телекомпания JNN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в Сеуле после 18 декабря. 25 сентября глава МИД РК Пак Чин приз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трёх стран к тес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вопрос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ммита в этом году.

(RKI)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визит Лаврова в Пхеньян вызвал активные спекуля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здания активно процитирова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главы МИД РФ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который 23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штаб-квартире ООН в Нью-Йорке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в октябре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пояснил, что эта поездка является следстви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13 сентября на российском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ый самми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Хотя дипломат не стал вдаваться в подробности по поводу целей своей поездки, 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министр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озможную встречу Путина и Кима уже в КНДР. Напомним, что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 россий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вождь пригласил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сетить Страну чучхе,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этой связ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ологических кругах стали рассуждать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может быть в повестке дня возможного саммита и как это отразится на ситуации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ообще и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частности.

В Сеуле прогнозируют активизацию блоков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по линиям США-Южная Корея-Япония и Россия-Китай-КНДР, не исключая, что накал страстей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более высоким, чем во времен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Отметим, что на днях стало заметно и резкое охлаждени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Южной Корее не понравился тот факт,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Россию.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Генассамблее ООН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озволил себе прямые выпады против России, на что в Москве публично отреагировал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18 августа в Кэмп-Дэвиде (США) прошла трехстороння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По ее итогам политики подписали документы, где содержится критика в адрес трех стран, которые союзники открыто назвали свои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 Китай, Россию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Вашингтон, Сеул и Токио считают оправданным, но критикуют сближение своих противников.

Интересно, что на этом фон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стал пытаться вести двойную игру, явно стараясь сгладить накал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Пекином. По слух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Р и РК проводят актив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тараясь найти компромисс. Китай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и при желании может создать для Сеула много проблем. Последний этого не желает, хот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его страна будет четко следовать в фарватер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ША, которая выбрала курс давления на Кита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Лид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ппозиции завершил рекордную по длительности голодовку

Глава ведущ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после категорических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врачей завершил свою рекордную по длительности голодовку,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лась более трех недель. Однако теперь политика ждет новое испытание - прокуратура запросила ордер на его арест, тогда как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тменить депутатскую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Ли.

Напомним, что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о начале бессрочной голодовки протеста 31 августа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иуроченной к году нахождения его на посту лидера партии. Ли обвинил действующ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оправлении принципов демократии, предатель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потребовав извинений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и отстав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прочем, исходя из содержания весьма радика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было ясно, что лидер оппозиции не услышит от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того, чего стал требовать через голодовку.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Ли Чжэ Мён завершает голодовку протеста,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лась 24 дня, и начинает проходить курс лече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н продолжит оставаться в клинике. О возможных выездах Ли за пределы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будет решено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врачами", - заявил 23 сентября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ан Сон У. Он пояснил,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 разных сторон Ли Чжэ Мёна убеждали завершить его акцию, так как здоровье политика серьезно ухудшилось. Даж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тивники призывали Ли не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пищи и возобнови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роме того, врачи днем ранее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если Ли не прекратит свои действия, то организму может быть нанесен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ущерб, вплоть до летального.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кращение акции, испытания для Ли Чжэ Мёна не законч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прокуратура запросила ордер на арест Ли, обвинив его в коррупци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полномочиями, склонению к лжесвидетельству и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ях. Учитывая, что Ли является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у него был иммунитет от судебных преследований, н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до-

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 парламент проголосовал за то, чтобы снять с политика иммунитет и передать запрос прокуратуры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суда. Так как оппозиция обладала большинством в парламенте, то это означало, чт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коллег Ли по партии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то, чтобы делу дали ход, хотя сам политик де-факто призвал накануне не снимать с него иммунитет. Это стало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лучаем, когда парламент снял депутатский иммунитет с лидера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В результате 26 сентября запрос прокуратуры рассмотрит суд. В худшем случае Ли Чжэ Мён будет арестован, что станет для него сильнейш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ударом, в том числе по его амбициям занять президентское кресло на выборах в 2027 г.

С учетом всей этой ситуации ряд корейских аналитиков считают, что Ли начал голодовку, чтобы не позволить прокуратуре получить ордер на его арест.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прокуратура уже запрашивала ордер, но тогда парламент с перевесом лишь в один голос не стал отменять иммунитет. Голодовка, которая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сильно ослабл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Ли, ста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фактором,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ть работе следователей, но, как видно, это не сработало. В этой связи Ли должен явиться на слушания в суде 26 сентября, где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вопрос об ордере на арест. Согласно логике ряда политологов, именно чтобы четко доказать суду, что запрос прокуратуры не обоснован, Ли и прекратил голодовку, так как должен быть на слушаниях хотя бы в минимально норма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тогда как сейчас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слаб. По словам самого политик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окуратура ведет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 целью заранее устранить главного конкурента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на следующих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В любом случае Ли Чжэ Мён уже вошел в историю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установив рекорд самой длительной голодовки. До этого дольше всех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мотивам без еды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обходился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лет назад Ким Ён Сан, который затем стал президентом Кореи. Ким голодал 23 дня, а Ли смог продержаться на день дольш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 РК проведут зимнюю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С 19 октября в РК начинается вакцинация от COVID-19. Об этом 26 сен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менять адаптированную вакцину ХВВ.1.5 от компании Pfizer,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новый одноимённый подвариант коронавируса. 12 сентября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одобрил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анной вакцины в стране. Аналог от Moderna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менять сразу после одобрения. После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угрозы коронавируса господдержка в покрытии расходов на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сократилась. Тем не менее вакцин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ре-

шено провести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активно рекомендуется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2 до 64 лет со сниженным иммунитетом и другим лицам, относящимся к группе риска. Вакцинац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9 октября по 31 март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KBS World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этом году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с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ь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72 ж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и получили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из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Обуч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с начала 2023 года прошли 246 челове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по содействию началу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езработных граждан, желающих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мощи в открытии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будущ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ад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оказание услуги в любом центре занятости региона. В кадровых центрах соискателям помогут выявить склонность к заняти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бучат навыка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организу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и окажут помощь в подготовке бизнес-плана.

В случае успешной защиты бизнес-плана соискателя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которую они могут потратить на аренду помещ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другие нужды бизнеса. Размер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составляет 128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инвалидов, женщин из числа одиноких и многодетных родителей, воспитывающи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 192 тысячи рублей.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звозмездно и безвозвратно при услови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 менее двух лет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Служба занятости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работы по содействию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безработных граждан, это одн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 эт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способ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чими местами население,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Для безработных – реальный шанс изменить свою жизнь,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Елена Савельева.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программы, Ксения Рябо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крыла свое дело по оказанию услуг кейтеринга. Ксения решила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 совсем скоро девушка открывает свой ресторан.

– Я обратилась в кадровый центр за помощью в открытии бизнеса.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а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прошла обучение, успешно защитила бизнес-проект. Бизнес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коро открываю ресторан.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работникам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за их искреннее желание помочь,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 начала год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72 жителя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и получили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из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246 человек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более 460 безработных получи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Чаще всег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открывают бизнес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развитие сет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оказание бытовых, ремонтно-строитель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и других услуг.

Ро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6 сентября стартовал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Роль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в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и технологий для энергетике». На ней собрались десятки ведущих экспертов страны в сфер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кадемии наук и бизнеса. Их задача – разработать стратегию обеспечения кадрами 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региона.

– Для нас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о,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остав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чтобы они учились здесь и занимали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е места. Да и бизнес не сможет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 без науки в регионе. Поэтому перед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до 2030 года создать эффективную систему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и обеспечить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роры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 что университет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люди,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передать знания нашим детям. И СахГУ сегодня вплотную занимается привлечением высококласс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будут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нашей дискусси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ник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коротко рассказали о ряд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уже реализуются в области 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оит осуществить. Это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Он позволит локализовать нефтесервисные услуги и обеспечить обслуживание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а в дальнейшем и производств по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углеводородов. Идет работа над созданием Восточного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экспорта и развитие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водорода. В партнерстве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конструкторским бюро средств автоматизации мор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КБ САМИ) идет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водородного инжиниринга с опытным полигоном. С Росатомом, РЖД и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ом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ассажирск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 применением поездов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Немало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который обеспечит успех этих проектов,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мощност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и. Это, например,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коллективног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 дизайн-центр «Сахалин» (АО НПЦ «ЭЛВИС» и ООО «ТЕЗОНА»). Все эти проекты помимо кадров требуют наличия серьезной научной базы и внедрения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мках больш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до 2025 года будет создано свыше 15 тысяч нов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гноз потребности в кадрах до 2028 год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будут нужны до 25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почти 4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о сред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есть колоссальн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адрах. Но мы должны знать конкретно, кто нам нужен. Да, мы готовим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дела, энергетики. Но зачастую работодатели говорят, что компетенции не полные. Поэтому нам важен их запрос. Вместе с тем, мы должны с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буду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в кадрах, учитывая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того ж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егодняшнее обсуждение будет посвящено, в том числе, этим вопроса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о.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Руководитель вуза коротко представил экспертам видение развития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фундамент которого залож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в 2026 году.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одератором сессии выступил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оритет-2030», профессор Московской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я СКОЛКОВО Андрей Волков. В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егодня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32 вуза из 56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12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з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Уже 10 лет я плот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 с ведущи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Не секрет,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три-четыре года очень большой фокус внима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икован к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Поэтому наша команда сегодня здесь. Секрет успех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ряд стран восток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Суть в том, чтобы университет мог превращать научные идеи в конечный продукт. На этот путь встали ведущ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траны, но и регионы должны влиться в этот поток. Убежден, что Сахалин ждет успех на пути развит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 поделился Андрей Волков.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олучают средства 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своих школ 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объявило о старте нового цикла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Ребята предлагают авторские идеи,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реализовать в сво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ил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Лучшие инициативы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до 2,5 млн рублей на школу.

Ребята разрабатывают проекты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спортив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лучш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школы, созданию зон отдых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Лучшие из них определяются на общешколь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и в дальнейшем финансируются из областного и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Также ученики могут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оих идей, помогая учителям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школы в выполнении работ по проекту.

– Программа школь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позволяет учащимся 9-11 классов получить опыт работы с бюджетом, научиться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роблемы и предлагать решения, развивать навыки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лидерства, а также повысить бюджетную грамотность,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опатина. –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школьники 129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 На каждую школу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м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по 2,5 млн рублей. Данные средства ребята могут направить как на развитие и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школь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так и на проек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аких как скверы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села Кировского Юлия Ляхова уверена, что школьное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ученика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овлеченными не только в школьную жизнь, но и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родного села.

– Участие в «Молодежном бюджете» для наших ребят – всегда целое событие и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Они тщательно обдумывают свои проекты, готовят видеопрезентации, защищают их. Чтобы ребята лучше представляли, как будут выглядеть их идеи в реальности, мы с ними делаем макеты будущих объектов. Проекты мы выбираем не просто для галочки. Каждый из них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родного села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его жителей, чтобы всем нам было уютно и комфортно жить здесь, –

рассказала Юлия Ляхова.

За шесть лет в Кировском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школь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еализовано пять проектов, и на достигнутом сельча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е намерены. В планах – обустройство гаража для спецтехн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овой школы.

Школьное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8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в жизнь воплотилось более 640 идей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из бюджета региона выделено 1,6 млрд рублей. Еще 143 инициативных школьниками проекта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этом году, на их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областной каз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322,5 млн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школьная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а «Безопасные дор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лимпиада «Безопасные дороги» стартовала в регионе на платформе «Учи.ру» и продлится до 15 октябр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Онлайн-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оверяет и повышает дорожную грамотность учеников 1–9-х классов.

«Основная наша задача строить дороги не только качественными, но и безопасным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дорогах зависит и от каждого из нас, каждый должен знать прави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и уметь применять их в жизни. В особом приоритете – дет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мен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помнить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и их родителям о важнейших правил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орогах – для всех школьников проводится эта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а. Задания позволяют им углубиться в тему дорож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 допускать ошибок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 сообщ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Онлайн-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четвертый год подряд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5 тыс. учеников 1–9 классов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интенсивность движения растёт, расширяется дорожная сеть в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к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формирование у школьников культуры безопасного поведения на дорогах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эти знания по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в учебной ситуации, но и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пекто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 Игорь Владимирович.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дорог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обустраивают пешеходные переходы, устанавливают дорожные знаки, искусственные дорожные неровности, сигнальные столбики, наносится разметка,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Дет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остается в приоритет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школах проводятся занятия, где ребят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как правильно переходить дорогу, что обозначает тот или иной знак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ак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в городе и как правильно выбрать безопасный маршрут.

«Ежедневно дети совершают путь из дома в школу и обратно,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этот маршрут был максимально безопасным. Совместно с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ей в учреждениях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икторины, конкурсы, состязания на проверку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Есть команды, стабильно показывающие высокий результат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конкурсах юных инспекторов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Безусловно, эту работу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а олимпиада поможет ребятам укрепить теоретическую базу»,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 проходит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Учи.ру.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заданий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Учи.ру и из личного кабинета перейти на страницу олимпиады. Перед тем как приступить к соревнованию, нужно потренироваться. Выполнять задания можно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при возможном участии ро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нлайн-олимпиада проводится четвертый год подряд. Популярн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казала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интенсивность движения растет, расширяется дорожная сеть в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формирование у школьников культуры безопасного поведения на дорогах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ейшей задачей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родителей и педагогов.

Олимпиада продлится до 15 окт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Выполнять задания можно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ли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Ребята ждут новые локации и ситуации, например, подготовка к поездке на велосипеде или безопасная езда на электросамокате. Многие темы заданий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новом прочтении, чтобы олимпиаду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проходить как вновь присоединившимся школьникам, так и тем,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предыдущих олимпиад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난방시기를 맞아 공공 제반시설 97% 완비

난방시기를 맞아 오하 지역에서 난방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10월 1일부터는 노글리키 지역, 사할린 중부 도시 지역에도 난방이 가동되고, 10월 초부터 유즈노 사할린스크 주민들의 주택에도 난방이 가동되며, 전과 같이 네웰스크, 홈스크 구역에서 난방 가동이 완료된다. 쿠릴열도에서는 10월 10일 - 15일 사이에 난방이 가동된다고 사할린 주 정부 측이 전했다.

주택 내부 난방시스템은 순차적으로 가동되는데 전과 같이 가장 먼저 사회적 시설부터 시작해 유치원, 학교, 보건소, 병원에 난방이 가동된다.

"현재까지 사할린주의 공공 제반시설 완비율은 97%이다. 2023년 - 2024년 난방시기 지역 난방완비의 일환으로 수리 업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위험은 없다. 지금 티모브스코예 지역 조날니 마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스미르니흐, 노글리키 구역에 난방망 공사가 완료되고 있다."고 사할린주 주택 공공사업부의 율가 갈포와 차관이 말했다.

10월 1일까지는 사할린 지역에 표준량의 석탄 비축이 완전히 이뤄지고, 쿠릴 섬들에 고체 연료 운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섬들에 이미 1년간 쓸 석탄 비축량이 확보되었다.

다음에 난방시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나야'와 티모브스코예 지역 조날니 마을 15호에 새로운 가스난방이 가동된다. 10월 초에는 지방에 가스 공급 후 마카로브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 난방보일러를 가동한다.

올 봄에는 코르사코브와 티모브스코예 지역의 키롭스키 마을에 가스가 이용되는 공공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새로운 시설들이 건설됐다. 사할린 전 지역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41개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2023년에는 사할린 지역에 난방시기에 고품질의 현대적인 난방 가동을 위한 <2023년 - 2027년까지 공공 제반시설의 현대화 시스템>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5km의 난방관이 교체되었고, 31km의 상수도관이 교체되었으며, 5.5km의 하수관이 교체되었다.

사할린한인의 운명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3편의 계속)

그들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라도 바다 건너 먼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습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사할린한인 여성이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할린한인 역사에 관한 책이 사할린 문학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흥미롭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헌신, 아이들을 위한 배려 등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 책은 두 달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른 도시 및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친척에게 선물로 보내기도했습니다. 이 책은 사할린 도서관에 기증되었고, 독자들은 이 책을 읽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제 고향이며,저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조국입니다. 이곳은 제 조부모가 마지막 날까지 돌아가기를 꿈꿨던 곳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나에게 더 중요하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주의 개념은 올바릅니다. 저희들이 전통을 보존하면서 다른 문화의 최고의 업적을 흡수하는 것도 올바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존경하는 관습을 보존하고, 김치를 만들고, 러시아 문학 없이는 제 자신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제 친구가 동료에게 소설을 읽어보라고 권했는데 그 친구는 이것을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진지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화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감독의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지금 우리는 영화의 대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마다 모든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제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한민족 문화는 사할린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포들은 한민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사할린 우리말방송국은 모든 사할린주민들이 시청하고 새고려 신문도 모든 민족들이 읽습니다. 이 언론매체 제작자는 사할린동포 여성들입니다. 사할린한인 여성들이 노래자랑 콩클, 한민족 문화축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복쇼, 한국 및 조선 화가들의 전시회 등 행사를 조직하고 진행합니다.

책,영화,텔레비전 등 문화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한 지구촌에 살고 있으며, 우리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유대 관계를 맺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경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사편집부로부터: 일전에 최옥순(최 빅토리아) 작가의 '내가 바다가 될때' 소설책은 전 러시아 아르세니예브 문학상 '극동' 제5회 시즌의 '긴 목록'에 후보작으로 올랐다고 전해졌다. 이 연례 문학경연대회에는 이번에 87건 참가신청이 들어온 가운데 심사전문가들은 30개 문학작으로 '긴 목록' (3가지 부문 '장편소설', '단편소설', '동화소설')을 구성했다. 사할린 작가 4명의 작품이 선정된 가운데 최 빅토리아의 작품도 들어있다. 현재 심사위원들은 상위 '쇼트 목록'을 선정 중이다. 문학상 발표는 연말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3~6일 잠실 롯데호텔서 개최

60여개국 한인회장 및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임원 400여명 한자리에

'2023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회장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거주국에서 한인동포들의 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행사다. 2000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해오다 올해부터는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주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해외 60여개국 한인회장 및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임원 400여명이, 국내에서는 유관기관 및 동포단체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랑스런 재외동포, 든든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개·폐회식, 기조 강연, 정부와의 대화, 10개 지역별 현안 토론,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전체 회의, 유관

기관 상설상담실 운영, 제17차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동포들이 한국방문 시 이용하게 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는 한인회장들이 대한민국 발전상을 체험하고 발전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사찰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첫해에 개최되는 대회로 동포사회를 대표해 참가한 한인회장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재외동포 정책을 동포사회에 전달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돼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동반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추석 연휴기간 원폭 피해 동포 초청

'동포 보듬기' 1호 사업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추석 연휴기간(9.28-10.3)에 원폭 피해 동포 약 40명을 한국에 초청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이번 원폭 피해 동포 모국 초청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재외동포청의 '동포 보듬기' 1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재외동포청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원폭 피해 동포들이 모국의 따뜻한 정과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모국 발전상 체험(9.30-10.1) ▲건강검진(10.2) ▲재외동포청장 주최 만찬(10.2) 등의 일정을 마련했다.

원폭 피해 동포들이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시찰함으로써 과거의 희생과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고향인 원폭 피해 동포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단체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재외동포청장과의 만찬을 통해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오랜 세월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모국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옥타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10월 24~27일 수원서 개최

68개국 143개 지회 한인 경제인들 한자리에 모국과의 상생발전에 초점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장영식)가 주최하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월드옥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국내 청년 취업난 해소, 지자체 문화·관광·산업의 해외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모국과의 상생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월드옥타 산하의 68개국 143개 지회 회원들과 차세대, 여·야 의원 및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인 10월 24일 오전에는 글로벌마케터 워크숍, 해외취업박람회, 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과 월드옥타 산하 국제통상전략연구원(원장 안경률)이 공동 주최하는 추계세미나, 개회식 등이 진행된다.

해외취업박람회에는 19개국 56개사가 참여해 국내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과 글로벌 특강, 취·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인력인 '글로벌마케터' 워크숍에서는 해외지사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간담회가 진행된다.

세계한인경제포럼·국제통상전략연구원 추계세미나에서는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기술'이란 주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중교역의 어려운 통상환경 극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아세안 국가와의 새로운 교역 확대와 경제발전·번영을 위한 기

회 창출의 세부 전략·전술을 토론한다.

개회식에서는 대한민국 수출 공로를 인정받은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정부 및 유관기관 표창이 수여되며, 개회식 후에는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 공동 주최 만찬이 이어진다.

대회 2일차인 10월 25일에는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국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와 트레이드쇼 등이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중소기업 60개사가 참여해 68개국 한인 바이어와 매칭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우수기업의 수출 총판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 회원사 간 수출 판로 개척,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월드옥타 12개 통상위원회가 참여해 70개 회원사 제품 홍보에 나선다.

대회 3일차인 10월 26일에는 월드옥타 이사회와 정기총회, 폐회식 등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월드옥타의 22대 회장,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대회 4일차인 10월 27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이 일산 킨텍스로 이동해 '2023 G-FAIR KOREA (제26회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석하는 일정도 마련돼 있다.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은 "월드옥타는 지난 42년간 대한민국 수출증진을 통해 모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이념 아래 3만여명의 회원이 힘을 모아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 한인 경제인 1,000여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트레이드쇼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업 수출판로 개척 및 경제 활성화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добавили, что в мае 2023 год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нижном салоне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ект «Книжный парк» занял 1 место в конкурсе «Книга будущего» в номинации «Новые форматы чтения».

암호화폐 사기꾼들, 한 달 만에 사할린 주민들로부터 500만 루블리 이상 갈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34세 여성 주민이 한 달간 암호화폐 사기꾼에게 540만 루블리를 '투자'했다. 사할린 내무국이 밝힌 바로는 여성은 암호화폐 구매로 자금이 적립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속아서 피해를 당했다는 알고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된 사실은 사기에 대한 범죄사건으로 기소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유즈노사할린스크 1965년생의 여성 주민은 사기꾼들과 전화 교신 후 1백만 루블리를 잃었다. 피해 여성은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기꾼들이 피해 여성의 계정으로 5건의 대출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이후 이어서 '경찰', 또는 '불법자금 전환 단속 전문가'로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은행에서 1백만 루블리를 대출을 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정으로 이체하라고 설득하여 그대로 했다.

Криптомошенники за месяц похитили у ж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а более 5 млн руб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4-летняя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за месяц «инвестировала» в мошенников 5,4 млн рублей. Женщина думала, что вкладывает деньги в продажу криптовалюты, сообщили в УМВД по Саха-

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терпевшая поняла, что ее обманывали, она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цию. По данному факту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о мошенничестве.

Еще одн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1965 года рождения потеряла миллион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аферистами.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ей позвонила неизвестная и сообщила, что мошенники оформили на нее пять кредитов. Далее женщине стали поступать звонки от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борьбе с незаконным оборотом денег». Они убедили потерпевшую взять в банке кредит на 1 млн рублей и перевести средства на указанные ими счета.

사할린에서 반려견의 입마개와 목줄 없이 산책할 경우 벌금형

사할린주에서 애완견 산책과 사육에 관한 개정안이 주의 회 최종 회의에서 채택됐다. 개정법안은 애완견에게 입마개와 목줄 착용 없이는 산책을 금하고, 공공이용시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주의회가 개정된 법안에는 현재 다락방, 지하실, 계단 난간, 공동주택의 부엌과 복도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스포츠 구역, 의료기관 구역, 문화 및 유사 기관에서도 사육을 금하며, 애완견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채우고 산책시켜야 한다. 단, 개의 견갑골에서 다리까지 길이 25cm 이하의 개는 예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000루블리 - 4000루블리가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5000루블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Штрафы за выгул собак без намордников и поводка в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кон, регулирующ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авила содержания и выгула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риняли в окончательном чтении островные парламентарии. Он подразумевает запрет на выгул питомца без поводка и намордника и на его содержание в мест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

бе облдумы.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арламенте уточнили, что теперь запрещено содержать животных на чердаках, в подвалах, на лестничных клетках, кухнях и коридорах коммунальной квартиры. Это же касается территорий дет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и медорганизаций,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 других подобных местах.

Владельцы обязаны выгуливать питомцев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на поводке и в намордник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животных размером менее 25 см в холке и собаки-поводыря.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грозит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2000 — 4000 рублей. За повторное нарушение — 5000 рублей.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부동산 박람회 개최

부동산 박람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초대한다. 이 행사는 9월 30일(토) '마약(등대)' 아트센터(레닌나 거리. 150)에서 10시부터 13시까지 개최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부동산 박람회에서 선도적 건물주들이 자신의 부동산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적합한 형태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관심 갖는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가 주택 소유 증명서 소지자를 위한 특별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Ярмарка недвижимости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ярмар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субботу, 30 сентябр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ул. Ленина, 150) с 10:00 до 13:00,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ярмарке недвижимости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редставят ведущие застройщики региона. Горожане смогут подобрать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квартир,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интересующим вопросам. Такж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жилищ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